

문화가 꽃 피는 남원으로 오세요

남원 광한루원과 몽심재 고택에서 음악 축제가 열린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우리나라 누각 중 으뜸으로 꼽히는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평일(화-금) 오후 2시 전통공연을 연다

남원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 공연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선보이고자 전통공연을 구상했다.

공연은 화요일 남원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 한마당'을 시작으로 수요일 남원시립국악단의 '광한루원 전통 소리창', 목요일 국립국악원의 '광한루원 음악회', 금요일 '판소리, 국악가요'로 이어진다.

광한루원 완월정서 매일 국악공연...주말엔 신관사도 부임행사
몽심재 고택에선 '주제가 있는 마을음악제' 총 6회에 걸쳐 열

다. 주말공연도 준비했다. 춘향테마파크에서 광한루까지 거리 퍼레이드와 춘향전을 토대로 짜여진 마당극 신관사도 부임행사를 연다.

국가민속문화제 제149호인 몽심재 고택에서는 '주제가 있는 마을음악제'가 열린다.

마을음악제는 지난 18일 시작해 6월 1일과 10일, 7월 17일, 8월 29일, 9월 26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음악제에서는 대금독주(이동준 외)와 태평소·타악 공연(박종대 외), 가야금 연주(송화자 외), 명무(박광자 외) 등 총 5가지 공연을 선보인다.

관람은 마을주민 및 시민 등 몽심재를 방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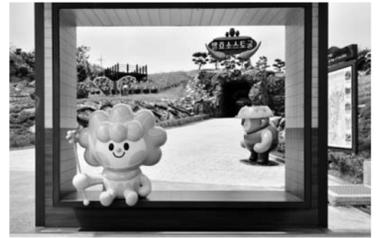
남원시는 지난해 문화재청이 공모한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에 선정됐다. 1억8400여만원

을 확보해 몽심재 고택과 죽산박씨 종가(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80호)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몽심재 고택은 조선 후기 박동식(1753-1830)이 지은 전북을 대표하는 양반가옥이다. 사랑채는 '1'자형이고 안채는 남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ㄷ'자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몽심재를 중심으로 종갓집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체험·공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면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 발효소스토굴 개장 입구에 인조동굴 등 조성

순창군이 발효소스토굴 입구에 인조 동굴을 조성 뒤 지난 18일 재개장했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됨에 따라 발효소스토굴을 개장했다.

발효소스토굴은 코로나19로 지난 2월 24일부터 임시휴관 중이었다.

순창군은 휴관 기간에 토굴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입구에 길이 10m, 높이 5m의 인조 동굴인 '인조암'을 조성했다.

또 순창군발효미생물 캐릭터 포토존과 기존 고추장 용기를 활용한 아트 작품도 볼을 맞아 새롭게 교체하는 등 토굴 내 분위기 변화에 주력했다.

토굴 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울여름에도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밤에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야간 개장도 준비하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는 매일 오후 2시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대금독주·타악·가야금연주 등 전통공연을 연다. 또 몽심재 고택에서는 총 6차례 마을음악제를 개최한다.



(남원시 제공)

고창군, 한옥 전문인 양성 인구 유입 프로그램 우수 사업 선정

고창군이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실습장을 활용한 인구증대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0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한옥전문인 양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구 유입' 프로그램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9000만원 을 확보했다.

이 공모는 행안부가 대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31개 시·군이 지원해 총 10곳이 선정됐다.

전북대 고창캠퍼스는 전국 최고의 한옥실습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며, 고창군과 전북대 고창캠퍼스는 이 곳에서 고창 청년을 위한 목조건축 교실, 집수선 건축 교실, 한옥건축 교실 등을 운영한다.

고창군은 지역청년들에게 한옥 건축 등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 수료 후에는 지역 내 빈집과 노후건축물을 수리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저출산 극복'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9개 단체·업체와 출산장려 협약

익산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 서동로타리클럽, 한국부인회, 코코밀, SL.디루체, 눈에편한안경, 우리함께할세상 시정양커피, 동서네까치분점, 미령문구점 등 9개 단체 및 업체가 참여했다.

익산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번 협약을 주도했다.

협약에 참여한 민·관은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의 경제적 지원과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동참하게 된다.

익산시는 지속적으로협약 업체를발굴해 저출산극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아이의 가정의 기쁨이며 사회의 축복"이라며 "시민 누구나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



익산시는 지난 1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 등 9개 단체 및 업체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제공)

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시, 70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정읍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준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정읍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운전자다.

면허반납 희망자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취소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

문 신청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에서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시행 이후 270여명이 스스로 면허증을 내놨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필우·박종관·허진옥씨 집에 5·18민주유공자 명패 부착

유기상 고창군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5·18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민주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줬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에는 4명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유 군수는 고창을 정필우씨, 대산면 박종관씨, 성송면 허진옥씨 자택을 찾아 유공자 가족을 격려하고 '민주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했다.

유 군수는 "늦었지만 직접 민주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며 "5·18 정신 계승을 통해 나눔과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